

宋代 史書의 《春秋》 계승 의식과 문학성의 관계 고찰*

안예선**

◁ 목 차 ▷

- I. 서론
 - II. 도덕적 역사 서술-歐陽脩의 《新五代史》
 - III. 정치 공리적 역사 서술-司馬光의 《資治通鑑》
 - IV. 정통 史書의 한계, 대안으로서의 野史
 - V. 결론
-

I. 서론

《春秋》는 공자의 뜻이 담긴 책이라는 믿음 때문에 역대 모든 史家들은 《春秋》의 계승을 자처해왔다. 《춘추》를 계승한다는 것은 史書가 역사 사실의 기록을 넘어 王道, 君臣간의 명분, 도의를 설파하고, 나아가 왕조의 정통성과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춘추》의 이념화는 宋代에 절정에 이른다. 이 시기 史家만큼 《춘추》 정신을 핵심으로 하면서 역사 서술로 '성인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시대는 없었다.¹⁾ 이러한 경향은 宋代 春秋學의 성행과 궤를 같이 한다.²⁾ 五대의 혼란한 국면을 이어 등장한 宋朝는 도덕적 가치의 회복,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380)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1) 王東, 〈宋代史學與春秋經學: 兼論宋代史學的理學化趨勢〉, 《河北學刊》, 1988년 第6期, 47쪽.

2) 송대 춘추학의 성행은 역대 최고였다. 《四庫全書總目·經部·春秋類》에 수록된 저서 114부 중 송인이 편찬한 것이 38부로 수량적으로 가장 많다.

이민족과의 대치상황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이념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춘추》가 각광을 받게 된다. ‘尊王’과 ‘大一統’이라는 춘추 정신이 시의적절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서 구양수는 《신오대사》를,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편찬하였다.³⁾

본고는 중국 사서에서 본연의 풍부한 문학성⁴⁾이 사라져가는 궤적을 고찰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고대 중국에서 사서는 역사적 사실의 뼈대 위에 사관의 주관적인 상상이나 예술적 가공이 더해진 것이었다. 《史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사기》를 사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기》 중의 많은 장면과 대화는 사마천의 창작이라는 점이 공인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다. 사마천의 창작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 이후, 사서에서 사관이 문학성을 발휘하는 것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송대의 《신오대사》와 《자치통감》에 이르면 문학성은 현저히 감소한다.⁵⁾ 본고에서는 《春秋》 계승 의식이 이념화 되어 가면서 역사 기술이 경직화, 객관화되어 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럴듯한 전개를 위한 작자의 문학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음을 《신오대사》와 《자치통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3) 賈貴榮, 〈春秋經典北宋史學〉, 《中國史研究》, 1990年第1期, 16쪽. 《춘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송대의 사서로는 일반적으로 《신오대사》, 《자치통감》 그리고 朱熹의 《通鑑綱目》을 언급한다. 《통감강목》은 주희의 독창적 편찬이 아닌 《자치통감》을 재구성, 편집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 문학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 말하는 ‘史書에서의 문학성’이란 사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서술태도에서 벗어난다고 보일 수 있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예술적 가공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생한 역사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사관은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그 현장에서 받아 적었다고 할 수 있으리만치 실감나는 대화와 독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허구적 고사와 인물까지 삽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서는 풍성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된다.

5) 두 사서에 대한 이러한 인상적 평가가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新五代史》와 《資治通鑑》이 사실과 객관성의 논리로써 뛰어난 역사서이지만 《史記》에 비해 문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기존의 모든 중국 문학사와 산문사, 문장 선집을 통털어 보아도 《史記》는 거의 빠지지 않고, 《漢書》가 경우의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구양수의 《新五代史》나 사마광의 《資治通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新五代史》와 《資治通鑑》은 문학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자 한다.

《신오대사》와 《자치통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으며, 《춘추》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오대사》와 《자치통감》이 도의와 명분이라는 《춘추》적 이념에 집중하게 되면서 문학성을 배제하게 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보다는 편찬의 목적과 집필 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도덕적 역사 서술-歐陽脩의 《新五代史》

宋太祖는 開寶 6년(973) 薛居正에게 오대사의 편찬을 명하였고 1년 만에 완성되었다. 이 《오대사》는 朱溫이 唐을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한 907년부터 송나라 개국 960년까지의 50여 년 동안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로 왕조가 교체되었던 난세의 역사와 왕조가 바뀌면 군주를 옮겨가며 권력에 빌붙어 살아남았던 인물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나 폄하가 없었다. 당시 《오대사》의 편찬에 참여했던 薛居正 이하 관료들은 대부분이 오대의 舊臣이거나 귀순한 南唐의 신하들이었기에 충의와 지조를 최상의 도덕 가치로 여길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오대사》가 불만스러웠던 구양수는 “간신적자의 죄와 충신, 의사의 지조가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奸臣賊子之罪, 忠臣義士之節, 不傳於後世)” 되었다며 새로운 《오대사》를 집필한 것이다.

선공께서는 칙서를 받들어 《唐書》를 편찬하시고 또 《오대사》 74권을 지으셨다. 〈본기〉는 춘추의 서법을 사용하셨으니 사마천과 반고라 하더라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 《오대사》는 선악에 대해 정밀한 의법에 따른 포폄을 행하는 것을 가장 엄두에 두셨다. 사론에서는 반드시 ‘嗚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난세의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춘추론〉에서 “옛날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은 난세에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내가 본기를 지은 것은 법을 바르게 하고 亂君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오대사》를 편찬하신 뜻이다. (先公既奉勅撰唐書紀志表, 又自撰五代史七十四卷, 其作本紀, 用春秋之法, 雖司馬遷、班固皆不及也. …… 其於《五代史》, 尤所留心, 褒貶善惡, 爲法精密, 發論必以“嗚呼”, 曰“此亂世之書也”. 其論曰: “昔孔子作春秋, 因亂世而立治法, 余述本紀, 以治法而正亂君.” 此其志也.)⁶⁾

구양수는 “이름을 바로 하여 명분을 정하고 내막을 찾아내서 진실을 따지며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춘추》를 지은 연유⁷⁾”라며 자신 또한 이 뜻을 계승하여 “법을 세우고 난군을 바로잡으려[治法而正亂君]”는 의도로 《오대사》를 편찬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신오대사》에는 구양수만의 독특한 史論 형식이 있는데 《사기》의 “太史公曰”과 《한서》의 “贊曰” 등 역대 사서에서 말미에 사론을 첨가하여 결론을 삼았던 것처럼 구양수는 “嗚呼”라는 감탄사를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는 난세에 대한 통탄과 탄식이 담긴 구양수만의 표현이다.

구양수가 이토록 《춘추》에 집착했던 것은 오대가 ‘亂世’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 중 대표적인 분열과 혼란의 시대인 오대는 군신 간의 충의와 절개, 명분이 사라지고 배반과 변절로 점철된 시대였다.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간의 도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고 天理가 사라진 혼란의 극치였다.⁸⁾ 공자가 질서와 예의가 붕괴되는 난세에 맞서 시비와 선악을 분명히 하여 천자의 법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춘추》를 지었던 것처럼 구양수 또한 난세의 선악과 시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오대사》를 편찬한 것이다. 《춘추》의 의리로 오대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 그러므로 구성과 필법 등 모든 방면에서 《춘추》의 의리와 명분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구양수는 우선 구성을 일신했다. 설거정의 《구오대사》는 인물의 졸년에 따라 나라별로 입전되어 있으나 《신오대사》는 이를 완전히 해체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인물을 10가지 유형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배열 순서와 내용면에서 모두 ‘尊王大一統’과 ‘善善惡惡’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⁹⁾ 열전의 표제를 보면 〈家人傳〉, 〈○臣傳〉, 〈死節傳〉, 〈死事傳〉, 〈一行傳〉, 〈唐六臣傳〉, 〈義兒傳〉, 〈伶官傳〉, 〈宦者傳〉, 〈雜傳〉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사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분류이며, 포

6) 歐陽發, 〈先公事迹〉《구양수전집》 부록권2, 2628쪽.

7) 〈春秋論中〉: 孔子何爲而修春秋, 正名以定分, 求情而責實, 別是非, 明善惡, 此春秋之所以作也. 《구양수전집》, 307쪽.

8) 오대의 혼란상에 대한 《신오대사》 중의 언급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唐家人傳第四〉: 「君君臣臣父父子子之道乖」, 〈晉家人傳第五〉 「禮樂崩壞, 三綱五常之道絕」 〈一行傳序〉: 五代之亂,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至於兄弟夫婦人倫之際, 無不大壞, 而天理幾乎其滅矣.

9) 張明華, 《新五代史研究》(浙江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년), 49쪽.

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家人傳〉은 왕자와 후비를 수록했고, 〈○臣傳〉은 梁·唐·晉·漢·周의 오대를 거치는 동안 한 왕조에서만 벼슬한 자를 수록했다.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3인의 신화에 대한 〈死節傳〉,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의 〈死事傳〉은 처음부터 절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죽음으로 섬긴 자, 〈一行傳〉은 은거하였거나 권세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가상한 행실이 있는 자들을 수록하였다. 〈唐六臣傳〉은 張文蔚 등 당조의 멸망을 초래한 6인을 수록하였고 〈義兒傳〉은 오대에 유행하였던 양자의 기풍을 반영하여 “친골육에게는 창칼을 겨누면서 다른 부류끼리 부자가 되는(干戈起於骨肉, 異類合爲父子)” 풍조를 비판하였다. 〈伶官傳〉은 충애를 받던 樂官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宦者傳〉은 환관에 대한, 그리고 〈雜傳〉이 있다. 잡전은 조대가 바뀔 때 따라 시류에 편승하였던 “몰염치[無廉恥者]”의 전형으로서 “雜에 포함된다”는 것은 실로 군자의 수치다[夫入於雜, 誠君子之所羞]라 하였다. 난세인 만큼 대부분의 인물이 잡전에 수록되어 있다. 4대의 왕조를 거치면서 10명의 군주를 섬겼던 馮道가 대표적이다.

전체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구체적 서술에 있어서도 철저한 춘추필법에 입각하고 있다. 춘추필법은 義例로 구체화되는데 의례란 어휘 선택과 표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구양수 자신이 가장 중요시한 원칙이었으며¹⁰⁾ 《신오대사》가 《춘추》를 가장 충실히 계승한 사서라고 인정받는 점이 바로 엄정한 의례 때문이다.¹¹⁾

구양수는 어휘의 선택과 표현에 있어 엄격한 원칙을 수립, 적용하였다.

용병에는 네 가지가 있다. 쌍방이 서로 공격한 것은 攻이라 하니 梁記에서 孫儒가 揚州에서 楊行密과 전투를 벌인 것과 같은 경우다. 대국이 소국을 침입하는 것을 伐이라하니 梁記에서 劉知俊을 보내 岐를 정벌하게 한 경우이다. 죄가 있으면 討라 하니 唐紀에서 李嗣源에게 趙在禮를 토벌하도록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천자가 직접 가는 경우를 征이라 하니 周紀에서 동쪽으로 慕容彥超를 정벌한 경

10) 구양수, 〈答李淑內翰書〉: 《五代史記》銓次取去, 須有義例; 議論褒貶, 此豈易當? 《구양수전집》, 1004쪽.

11) 趙翼, 《廿二史劄記校證》 권21 〈歐史書法謹嚴〉: (신오대사는) 춘추 서법으로 본기와 열전에서 포폄을 담고 있으니 《사기》라도 미칠 수 없다.(以春秋書法寓褒貶於紀傳之中, 則雖《史記》亦不可及也.) 《사고전서총목》: 대체로 포폄에 있어 《춘추》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의례가 엄격하다.(大致褒貶祖《春秋》, 故義例謹嚴.)

우이다. …… 무릇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먼저 법식을 세우고 각각의 일에 따라 그것을 따른 것이니 포폄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다른 서법으로는 의도를 담아 표현한 것이 있다. 梁紀에서 濟陰王을 시해[弑]했다고 썼는데 왕은 바로 당나라 昭宣帝(哀帝)이다. 昭宣帝라 하지 않고 濟陰王이라 한 것은 제위를 후량에게 내 주고 왕으로 책봉되었으므로 그렇게 써서 사실을 드러낸 것이며 ‘弑’라고 써서 후량의 죄를 드러낸 것이다.(其用兵之名有四: 兩相攻曰攻, 如梁紀孫儒攻楊行密於揚州是也. 以大加小曰伐, 如梁記遣劉知俊伐岐是也. 有罪曰討, 如唐紀命李嗣源討趙在禮是也. 天子自往曰征, 如周紀東征慕容彥超是也. …… 凡此皆先立一例, 而各以事從之, 褒貶自見. 其他書法, 亦各有用意之處. 如梁紀書弑濟陰王, 王卽唐昭宣帝也, 不曰昭宣帝而曰濟陰王者, 遜位後梁所封之王, 書之以著其實, 又書弑以著梁罪也.)¹²⁾

전쟁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攻, 伐, 討, 征 등의 어휘 선택을 달리하는 것은 단지 상황을 차별화 시킬 뿐만 아니라 사서 편찬자의 의도가 담기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포폄의 의도를 드러낸 경우이다. 朱溫은 唐 僖宗으로부터 ‘全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공로를 세운 당의 신하였다. 그러나 昭宗을 살해한 뒤 애제를 세웠다가 결국 애제로부터 선양받는 형식으로 당 왕조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하면서 애제를 濟陰王에 봉한다. 이로부터 오대10국의 난세가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주온은 결국 제음왕을 시해하고 마는데 이를 서술하면서 구양수는 ‘弑’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후량과 주전충의 죄와 폄하를 드러내고 있다. 엄격한 의례에 따른 用字와 함께 간략한 서술을 지향하였다.

즉위한 이후 大事는 기록하고, 옛 것과 다른 것은 기록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기록하고 뜻이 불명한 것이 있으면 기록하고 이후 사건의 복선이 되는 것은 기록하였다.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다.(自卽位以後, 大事則書, 變古則書, 非常則書, 意有所示則書, 後有所因則書. 非此五者, 則否.)¹³⁾

이렇게 사건과 명분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신오대사》는 분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150권에 다다르는 《구오대사》와 비교할 때 신오대사는 75권, 즉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본기〉 부분은 《구오대사》가 61권인 것에

12) 趙翼, 《廿二史劄記校證》 권21 〈歐史書法謹嚴〉

13) 《新五代史·梁本紀第二》 徐無堂 주, 13쪽.

비해 《신오대사》는 12권이니 6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본기〉 부분은 해마다 중요한 사건만을 조목식으로 배열하고 있어 서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李襲吉傳〉은 《구오대사》의 1400자를 구양수는 200자로 줄였다. 7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되면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충분해졌고 심지어는 삭제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삭제하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신오대사》를 “문장은 간략하고 사실은 갖춰져있다[文省而事備]”고 평가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¹⁴⁾

《구오대사》가 역사와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구양수의 목적은 《신오대사》를 통한 도덕화 염치, 명분의 회복이었다. 때문에 《신오대사》의 전체적 틀부터 매 글자까지 모두 《춘추》의 의리와 도리의 설파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춘추》의 의례와 명분에 대한 과도한 추종, 그로 인해 사실에 있어 너무 소략한 것이 오히려 결점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¹⁵⁾ 王鳴盛은 “만약 《구오대사》가 없었다면 아마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오대사》의 소략함이 너무 지나침을 비난했다.¹⁶⁾

· 구양수는 《구오대사》의 문장을 모두 삭제하였다. 오로지 시비의 판단에 주력하면서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격을 떨어뜨리려 하지 않았다. 고로 글은 훌륭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상세하고 자세히 갖추지 못했다. (蓋修所作皆刊削舊史之文, 意主斷制, 不肯以紀載叢碎, 自貶其體. 故其詞極工, 而於情事或不能詳備.)¹⁷⁾

· 비록 문장은 구양수보다 못하지만 사실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다. 구양수의 《오대사》는 서법을 중시하였고, 설거정의 《오대사》는 서사를 중시하였다. (雖文筆迥不逮歐史, 然事實較詳. 蓋歐史專重書法, 薛史專重敘事.)¹⁸⁾

14) 〈歐陽脩《新五代史》有關問題探討〉, 瞿林東 주편, 《新舊唐書與新舊五代史研究》(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9), 83~84쪽.

15) 청대 錢大昕과 王鳴盛 등은 구양수의 《춘추》에 대한 계승이 오히려 병통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권6 〈五代史〉(江蘇古籍出版社, 2000), 141쪽: 歐陽公五代史, 自謂竊取春秋之義, 然其病正在乎學春秋.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 93 〈歐法春秋〉(上海書店, 2005) 865쪽: 歐公手筆誠高, 學《春秋》却正是一病. 章學誠: 歐陽之病, 在逐文字而略於事實. 《文史通義》外篇一〈史學例議上〉

16) 王鳴盛, 전거서, 865쪽: 且意主褒貶, 將事實壹意刪削, 若非《舊史》復出, 幾嘆無徵.

17) 《四庫全書總目·舊五代史提要》

이 두 평가를 종합하면 《신오대사》는 춘추서법을 중시하느라 서사를 소홀히 한 결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사의 축소는 문학성의 감소라 할 수 있다.

간략을 중시한 구양수는 경제적인 언어 운용을 위해 주로 개괄식으로 서술했다. 이 때문에 문학적 각도에서 본다면 《사기》의 〈항우본기〉나 〈고조본기〉 같은 흥미진진한 전개나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樊噲를 기억할 때 鴻門宴에서 기지를 발휘했던 그로 기억하지, 그가 전장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고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기》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주로하며 개괄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신오대사》는 이와 정반대이다. 열전 한 편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장면 묘사나 일화, 인물의 대화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서술은 인물 전기가 아닌 이력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 까지 하는데, 이는 결코 일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오대사》의 기본적인 일반적 서술 방식이다.¹⁹⁾ 《사기》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서였기에 극적이고 생생한 장면과 대화 묘사에 치중했지만, 《신오대사》는 대의와 명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간략하게 처리한 것이다.²⁰⁾

과도한褒貶의 적용으로 다량의 사료를 삭제한 대표적 사례는 馮道이다. 북송 초만 하더라도 풍도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염치와 변절의 상징인 풍도의 전형은 구양수에 의한 것이라고 할 만큼 《신오대사》에서는 풍도의 부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실만을 부각시켰다. 구양수는 풍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료를 대거 삭제하여 시류에 편승하며 살아남은 변절 자로서의 형상을 만들어냈다.²¹⁾ 《구오대사》에는 풍도의 수차례 간언이 상술되어 있지만 구양수는 “아홉 군주를 섬기면서 한 번도 간언을 한 적이 없다[前事九君, 未嘗諫諍]”고 일축해버려 거의 왜곡에 가까운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구양수가 인용한 〈長樂老自敘〉는 교묘한 편집의 기술을 보여준다. 《구오대사》의 원문에는 풍도

18) 趙翼, 《廿二史劄記校證》 권21 〈舊五代史〉

19) 俞樾, 〈試論史記與新五代史的文章〉, 《浙江師範大學學報》, 1993년 6期. 69쪽.

20) 〈歐陽脩(新五代史)有關問題探討〉, 《新舊唐書與新舊五代史研究》, 86쪽.

21) 구양수가 의례에 근거하여 사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구체적 예시는 《新五代史研究》(浙江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3章 第3節 〈義例約束下新五代史對史料的增刪傾向〉 참조.

자신의 “실로 조대를 거치면서 관료생활을 한 것에 부끄러움이 있다(誠有愧於歷職歷官)”는 참회가 있지만, 구양수는 이를 삭제한 채 절록하여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도 스스로를 ‘長樂老’라 했던 염치없는 인물의 전형으로만 몰아갔다. 구양수는 자료의 취사선택과 기술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과 풍도의 언행들을 간과한 채 너무 간략화, 단편화 시켰다.²²⁾ 《춘추》의 의례와 포폄이라는 틀에 국한되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북송 시기에만 해도 《신오대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 사마광 또한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구오대사》를 위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南宋 이후 理學이 학술과 사상의 주류가 되면서 《춘추》의 이념에 충실한 《신오대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明代에 오면 《구오대사》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 또한 《신오대사》가 도덕과 의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Ⅲ. 정치 공리적 역사 서술-司馬光의 《資治通鑑》

《자치통감》은 《左傳》이 끝나는 시점인 周 威烈王 23년(기원전403), 췌나라 三卿이 결국 韓·魏·趙로 분국했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신하가 주군을 능멸했음에도 위열왕은 그들의 나라를 제후국으로서 인정했으니 주 왕실의 권위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다. 군신간의 명분과 도리가 사라진 시기에서 《자치통감》이 시작되는 것은 사마광이 이를 중시한다는 것을 반증한다.²³⁾ 이 부분에서 사마광은 천하의 억조창생은 모두 천자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명분과 禮로 기강을 삼는 것이라는 장황한 논설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사마광이 《춘추》의

22) 김학철, 《구양수의 사관에 관한 연구-신오대사의 풍도전을 중심으로》 72쪽,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3) 《자치통감》 권1(中華書局, 1995), 2쪽, 胡三省주: 삼경이 진나라의 정권을 훔치고 군주를 능멸하고 나라를 나누었으니 이는 왕법으로 반드시 주살해야 하는 것이다. 위열왕은 그들을 주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후로 임명하였으니 이는 명분을 해치는 신하를 추켜세운 격이다. 《통감》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은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三卿竊晉之權, 暴蔑其君, 剖分其國, 此王法所必誅也. 威烈王不惟不能誅之, 又命之爲諸侯, 是崇獎奸名犯分之臣也. 《通鑑》始於此, 其所以謹名分歟!)

‘尊王’과 ‘大一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대변한다.²⁴⁾

그러나 서술에 있어 사마광은 《춘추》처럼 포폄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저절로 시비곡직이 드러나도록 하는 《좌전》을 계승하였다.²⁵⁾ 구양수는 역사 자체보다는 도덕의 재정립을 위해 사서를 편찬한 것이었지만 사마광은 철저한 역사가의 입장에서 사실을 사실로서 전달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선악과 시비의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돌렸다.²⁶⁾ “《춘추》처럼 포폄을 세우고 난세를 다스려 바로잡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마광의 말은 “법을 바르게 하고 亂君을 바로잡기(治法而正亂君)” 위해 《신오대사》를 지었다는 구양수와는 대조적이다.

《자치통감》의 저술 목적과 의도는 과거의 역사를 군신 관계 중심으로 서술하여 당세의 황제에게 정치의 근본과 정도를 알리는 것이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완성하여 황제에게 바치는 表를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와 백성의 애환에 관한 것, 모범이 될만한 선한 일, 경계할만한 악한 일만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 역사의 흥망을 살피고 현재의 득실을 헤아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옛날의 성덕을 이루고 공전의 지극한 다스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專取關國家興衰，繫生民休戚，善可爲法，惡可爲戒者，爲編年一書。……監前世之興衰，考當今之得失，嘉善矜惡，取是捨非，足以懋稽古之盛德，躋無前之至治.)²⁷⁾

24) 龍小軍, 〈略談《春秋》與《資治通鑑》的相承關係〉, 內蒙古農業大學學報, 2007년제1기. 사마광의 논설은 길어 인용은 생략한다. 《자치통감》 권1, 2~6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25) 胡三省, 〈新註資治通鑑序〉: “좌구명이 춘추를 해석하여 전을 지었는데 애공 27년에 조양자가 지백을 해친 일까지 서술하였다. 통감은 조양자가 흥하고 지백이 멸망한 일을 첫머리에 기록하였다. …… 《통鑑》은 실제로 《춘추좌씨전》의 뒤를 잇고 있다.(左丘明傳春秋，止哀之二十七年趙襄子慧智伯事，通鑑則書趙興智滅以先事。……通鑑之作實接春秋左氏後也.)”

26) 《자치통감》 권69, 文帝黃初2년(2187쪽): 신이 지금 기록한 것은 단지 국가의 흥망, 백성의 애환을 서술하여 보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과 득실을 선택하여 권계를 삼게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춘추》처럼 포폄을 세우고 난세를 다스려 바로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臣今所述，止欲敘國家之興衰，著生民之休戚，使觀者自擇其善惡得失，以爲勸戒，非若春秋立褒貶之法，撥亂世反諸正也.)

27) 司馬光, 〈進資治通鑑表〉《資治通鑑》 9607~9608쪽 수록.

사마광의 의도와 목적은 지난 역사의 흥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至治’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원래 사마광이 정한 책의 제목은 《歷代君臣事迹》이었는데, 神宗이 책을 보고서 《자치통감》이라는 서명을 하사한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효용 [治]’을 위한 역사였기에 정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은 배제하였다. 사마광은 함께 《통감》을 편찬하였던 范祖禹에게 기록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詩賦 등이 만약 문장에 그치고, 황제의 조고로서 만약 관리를 임명하는데 그치고, 또한 괴상한 일이 괴이하고 허망한 것에 그치고, 회해로서 웃기는데 그치는 따위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시부에 풍자하는 것이 있고, 조고에 계론이 있고, 요이에 경계하는 것이 있으며, 회해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를 기록합니다.(詩賦等若止爲文章, 詔誥若止爲除官, 及妖異止於怪誕, 詼諧止於取笑之類, 便請直刪不妨. 或詩賦有所譏諷, 詔誥有所戒諭, 妖異有所儆戒, 詼諧有所補益, 並告存之.)²⁸⁾

문학 장르인 시부라도 풍자하는 것이 있다면, 괴상한 일이라도 경계하는 뜻이 있다면 익살스런 내용이라도 유익한 것이라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정치적 효용의 여부가 사료 취사선택의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李因篤이 나에게 말했다. “《통감》에는 문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사마천은 屈原의 사람됨을 칭찬하여 일월과 빛을 다투었다고 했지만, 《통감》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만약 杜甫의 ‘出師未捷’이라는 시가 王叔文에 의해서 낭송되지 않았다면 두보의 이름이 어찌 책 속에 기록되었겠는가?”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이 책은 본래 치세의 자료이니 어찌 문인의 일을 기록할 여지가 있겠는가?”(李因篤語予: “《通鑑》不載文人. 如屈原之爲人, 太史公贊之謂‘與日月爭光’, 而不得書于《通鑑》. 杜子美若非‘出師未捷’一詩爲王叔文所吟, 則姓名亦不登于簡牘矣.” 予答之曰: “此書本以資治, 何暇及文人?”)²⁹⁾

《사기》에서 충절이 일월과 같다는 칭송을 들었던 굴원을 《통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王叔文이 杜甫의 〈蜀相〉 중 “군사 일으켜 나갔으나 이기기 전에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후세의 영웅들은 웃기를 적시네[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

28) 司馬光, 《傳家集》 권63 〈答范夢得〉

29) 顧炎武, 《日知錄》 권27 〈通鑑不載文人〉, 臺灣 明倫書局, 1979, 764쪽.

襟]”라는 구절을 읊지 않았다면 杜甫 또한 《통감》에 등장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³⁰⁾ 《資治通鑑》은 역대 君臣들의 사적을 중심에 두었으므로 文人, 隱士 같은 부류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사마천이 광대와 자객, 상인, 유협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이러한 비주류 인물들의 삶 자체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문학적으로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정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일체 서술하지 않으면서 비정치적인 캐릭터는 배제되었고 문학적 필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또한 감소되었다.

사마광은 또한 시종일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으로 집필하면서 사료를 선별하고 삭제했다.

지나치게 빠어나고 특이한 이야기는 채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굴원이 모래를 품고 스스로 강에 투신한 일, 商山四皓가 태자를 보좌한 일, 嚴光이 발을 황제의 배에 올린 일, 姚崇이 10가지 정책을 건의한 일 등은 모두 산삭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사마광의 사람됨이 매우 충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그는 사마천이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한 것을 경멸했음을 알 수 있다.(見其大抵不采俊偉卓異之說, 如屈原懷沙自沈, 四皓羽翼儲君, 嚴光足加帝腹, 姚崇十事開說之類, 削去不錄, 然後知公忠信有餘, 蓋陋子長之愛奇也.)³¹⁾

사마광은 한고조가 태자를 폐하고 趙王 如意를 세우려 했던 부분에서 《사기》중 商山四皓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사마광은 이 사건을 사실이 아니며 사마천이 ‘기이한 것을 좋아[好奇]’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였다.³²⁾ 후한 광무제가 소식적 벗이었던 엄광을 궁으로 불러 밤새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엄광이 예전의 버릇대로 광무제의 배에 발을 올리고 잤다는 일화도 수록하지 않았다. 당 현종이 요승에게 재상직을 권유하자 요승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어 만약 현종이 자신의 10가지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재상이 되겠다고 한다. 상당히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주는 이 대목이 《통감》에는 없다.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30) 《자치통감》 권236 順宗永貞元年, 7614쪽.

31) 晁公武, 《郡齋讀書誌校證》 권5 《자치통감》조목(上海古籍出版社, 2006), 209쪽.

32) 《資治通鑑》 권12 太祖高皇帝下, 考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사마천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두 취하지 않는다(此之類皆非事實, 司馬遷好奇多愛而采之, 今皆不取.)

《考異》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상당한 편쪽을 할애하여 소개하고는 맨 마지막에 “호 사자가 이를 짓고는 吳兢의 이름을 위탁하였으니 다 믿기 어렵다. 취하지 않는다(似好事者爲之, 依託兢名, 難以盡信, 今不取.)”고 했다.³³⁾

사마광은 자신이 사료를 취사선별한 기준과 원칙을 《考異》를 통해 밝혔는데 이를 통해 사마광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마광은 “이 설은 거짓일 수 있으므로 취하지 않는다(此說恐妄, 今不取)”³⁴⁾거나 “이 설은 몹시 인정에 맞지 않으므로 취하지 않는다(此說太不近人情, 今不取)”³⁵⁾ “이 설은 애매하고 무계하니 취하지 않는다(其說曖昧無稽, 今不取)”³⁶⁾, “이는 농담거리에 가까우니 취하지 않는다(此近戲謔, 今不取)”³⁷⁾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록을 위해 신중하게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기》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사마광이 기존의 사서에서 소설적 허구와 과장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예를 들어 《사기》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 대목인 豫讓의 복수나 荊軻의 진시황 암살, 孟嘗君의 鷄鳴狗盜, 藺相如의 完璧 고사, 項羽의 해하가, 위기후 두영의 죽음 등의 장면은 대폭 축소되어 있다.³⁸⁾

豫讓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지백의 복수를 위해 조양자에게 세 번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사기》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다리에서의 시도마저 발각되자 조양자의 옷을 대신해서 찌르고 죽음을 택하는 장면이 장렬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자치통감》에서는 “襄子出, 豫讓伏於橋下. 襄子至橋, 馬驚, 索之, 得豫讓, 遂殺之”³⁹⁾로 축약되어 6하 원칙에 따른 핵심 사실만 기록되어있다. 荊軻의 진시황 암살도 마찬가지로. 연태자와 형가를 연결해주는 전광은 등장하지도 않으며 형가가 진나라로 떠난 순간의 비장함, 암살 시도 전의 긴장감과 자객의 등장에 이수라장이 된 조정의

33) 《자치통감》 권210 玄宗開元元年, 6688~6690쪽.

34) 《자치통감》 권12 高帝12년, 406쪽. 사마광은 《한서》에서 고조 사후 여후와 審食其가 대신들을 모두 주살할 계획이 있었다는 기록에 대해 “여후가 아무리 포악하다해도 어찌 하루아침에 대신들을 다 주살하려 했겠는가!”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35) 《자치통감》 권63, 獻帝建安4년, 2022쪽.

36) 《자치통감》 권216, 玄宗天寶九載, 6901쪽.

37) 《자치통감》 권219, 肅宗至德二載, 7014쪽.

38) 이상은 필자가 《사기》에서 고사성이 강하고 유명한 대목 중 몇 가지만 선별하여 《자치통감》과 시험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일일이 비교해 본다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39) 《자치통감》 권1, 16쪽.

모습 등은 대폭 축소되었다. 형가에 대한 평가에서 사마광은 양자의 말을 인용하여 “형가는 군자의 입장에서는 도적이라고 하였으니 훌륭한가”고 한다. 사마천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의와 용기를 가졌던 영웅이었지만 사마광에게는 ‘도적’에 불과했으므로 상술할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사기·인상여열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完璧’ 고사는 “相如至秦，秦王無意償趙城。相如乃以詐給秦王，復取璧，遣從者懷之，間行歸趙，而以身待命於秦”⁴⁰⁾로 압축된다. 《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성과 전개를 갖춘 고사들은 《자치통감》에서 설명문으로 처리된다. 물론 1300여 년에 걸친 통사라는 규모 때문에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중점 사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도 했을 테지만, 객관성과 개연성을 중시하며 비범하고 특이한 언행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지 않았던 사마광의 성격이 반영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는 인물의 범상치 않은 면에 주목하려 했던 사마천과 대조적이다.⁴¹⁾

사마천은 《사기》를 편찬하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대화, 심리를 마치 들여다보듯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사마천의 문학적 필치가 만들어낸 그럴 듯한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마광은 이를 역사를 쓰는 자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신이 생각건대 공자가 “꾸밈이 질박함을 이기면 뽀”라고 했으니 무릇 역사를 기록하는 자는 남의 말을 기록할 때 반드시 꾸미게 된다. 그런즉 위무를 고, 광, 초, 한에 비교한 것은 역사가의 꾸밈이다. 어찌 모두 순욱이 말한 것이라 하겠는가! (臣以爲孔子稱“文勝質則史”，凡爲史者記人之言，必有以文之。然則比魏武於高、光、楚、漢者，史氏之文也，豈皆臆口所言邪!)⁴²⁾

이는 唐 杜牧이 위 무제를 한나라 고조, 광무제, 초나라 항우에 비교한 순욱을 비난한 것에 대한 사마광의 반론이다. 사마광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꾸밈을 위해 자칫하면 진실을 잃어버릴 폐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⁴³⁾ 따라서

40) 《자치통감》 권4, 132쪽.

41) 《사기·태사공자서》: 의롭고 범상치 않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세운 사람들을 위해 열전을 지었다. (扶義倣儻，不令已失時，立功名於天下，作七十列傳.)

42) 《자치통감》 권66, 獻帝建安17년, 2117쪽.

사마광은 기존의 사료에서 이러한 꾸밈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려 했을 것이다.

객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성이었다. 사마광은 의문이 나는 두 가지의 사료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한다. “두 이야기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유씨의 설이 인정에 도타워 세상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二說未知誰得其實, 然劉說近厚, 有益風化, 故從之)”⁴⁴⁾ 사마광은 진실성의 측정에 윤리적 잣대를 끌어들인 것이다.⁴⁵⁾ 사실의 여부보다는 세상의 풍속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의 채택은 사마광의 목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이 아닐지언정 교화에 도움이 되고 정치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다. 이렇게 사료에서 소설적 과장이나 허구를 배제하고 윤리적 기준을 가미하면서 《자치통감》은 대체로 문학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통감》의 집필이 끝나고 오직 王勝之만이 빌려가서 완독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한 쪽을 미처 다 읽지도 못해 벌써 하품을 하면서 즐려했다”⁴⁶⁾고 사마광 자신이 말할 만큼 의론문처럼 딱딱한 《資治通鑑》의 문체는 독자들에게 무료하게 다가왔다.

4. 정통 史書의 한계, 대안으로서의 野史

《신오대사》는 시비와 선악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해 도덕적 가치의 정립이라는 목표 아래, 《춘추》의 필법과 포범을 실천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간결한 서사, 엄격한 의례에 몰두한 나머지 사건의 전말과 경과를 상세히 서술하지 못했고 문학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자치통감》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과 개연성이 없는 내용은 배제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은 담보되었으나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고사는 편집되었다. 이들은 《춘추》 이념에는 충실한 사서였지만 창작적 문학성은 감소하였고 《사기》와 같은 흥미와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역사쓰기

43) 민두기, 《중국의 역사인식》 상권 〈자치통감의 이해〉(田中謙二 著, 백영서 역), 322쪽.

44) 《자치통감》 권191, 高祖武德9년, 6007쪽.

45) 민두기, 《중국의 역사인식》 상권 〈자치통감의 이해〉(田中謙二 著, 백영서 역), 325쪽.

46) 胡三省, 《新註資治通鑑序》: 公自言: 脩《通鑑》成, 惟王勝之借一讀; 他人讀未盡一紙, 已欠伸思睡.

에서 문학성은 사라진 것일까?

宋代는 野史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된다. 야사는 일체 사서의 틀이나 원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역사쓰기다. 제목이나 序文에서는 한결같이 과적거리에 불과하다거나 불만한 내용이 없다는 등의 검사를 내걸고 있지만, 실은 이러한 잡스러운 이야기 또한 역사의 일부이며 후세에 전해 주어 ‘역사를 보충[補史]’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담겨 있다.

구양수는 《신오대사》를 편찬하면서 자료를 변별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정사를 쓰는 것이니 잘라내고 삭제할 것은 그리 하고 중요한 것만 남겨 두어야 한다.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남겨둘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체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설 같은 것에 기록해 두면 되지 정사에 남겨둘 필요는 없다. (今若便爲正史, 盡宜刪削, 存其大要, 至如細小之事, 雖有可紀, 非干大體, 自可存之小說, 不足以累正史).⁴⁷⁾

구양수가 ‘小說’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바로 야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사는 ‘크고 중요한(大要)’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야 하며, 사소한 일은 ‘大體’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사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원칙과 기준 때문에 《신오대사》는 최소한의 서술만으로 간략해진 것이다.

송대에 이르러 史書는 역사의 사실적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춘추》적 명분과 의리를 대변하는 도덕적, 정치적 도그마가 되었다. 하나의 원칙과 이념을 표방하는 사서, 이에 위배되는 혹은 불필요한 서사는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었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小說, 즉 野史였다.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편찬된 사서가 《춘추》의 이념적 틀 속에서 정형화되고 규범화되었던 것에 반해, 야사는 ‘小說’이라는 외피 덕분에 모든 이념성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文瑩은 《玉壺野史》의 서문에서 “사서가 있는 이유는 반드시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니, 후세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성현의 치란에 관한 자취는 천지간에 모두 사라지고 말 것”⁴⁸⁾이라고 했다. 자신이 기록하여 남기지 않는다면 현인들의 자취는 사라

47) 구양수, 《與尹師魯第二書》

48) 文瑩, 《玉壺清話》序(中華書局, 1997): 知所以有史者, 必欲其傳; 無其傳, 則聖賢治亂之跡, 都寂寥於天地間.

져 버릴 것이라는 강한 책임감과 자신의 저서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한 것이다. 이외에도 《貴耳集》의 서문을 보면, 서문 말미에 “삼가 태사공자서에 빗대어 쓴다(竊比太史公自序雲)”라고 덧붙이면서 자신의 야사를 사마천의 《사기》에 견주기까지 한다. 그 정도로 사실적인 역사기록임을 자부한 것이다. 王明清은 《揮塵錄》의 발문에서 “한 사건도, 한 글자도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無一事一字無所從來)”며 “실록에 부끄럽지 않다(當不愧實錄)”고 했다.⁴⁹⁾ 이들은 ‘소설’에 불과한 야사를 썼지만 역사를 기록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만큼은 史官 못지 않았다.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송대의 지식인들은 야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다양한 서사를 포용했다. 《춘추》의 이념을 중심으로 포장된 공인된 사실과 결과만이 역사가 되는 사서를 벗어나 내막과 所以然을 설명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문학 정신이 발현되었다. 야사는 사실만을 경제적이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사서에 비해 훨씬 생동적이며 구체적이다.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개괄하는 것이 정사인 반면, 야사필기는 간단한 사건을 풍성하게 기록한다. 또한 《사기》 이후 사서는 당대의 역사가 아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현실 비판정신은 사라지게 되고 당대 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야사는 이러한 정사와 달랐다. 현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금의 역사에 대한 언급과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송대 이전에도 야사는 존재했지만 송대만큼 주체적이고 적극적 입장에서 기록되지 않았다. 송대 야사가 이토록 당시를 기록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정사가 점차 이념화되어 가면서 사실과 객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周密은 《癸辛雜識》의 서문에서 信史라 불리는 《춘추》이래로 과연 공정하고 진실된 역사가 있었는가라며 과감하게 자신 나름의 역사기록에 대한 포부를 밝힌다.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분별이 어찌 옳기만 하겠는가? 《春秋》이래로 取捨에 오류가 없고 好惡를 사사로이 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잘못과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는 많다. 비록 한 때의 건문이라고는 하나 무심함에 바탕을 두고, 천년 이래의 상과 벌을 사사로운 뜻으로 맡겼 해 보려 한다.(是非眞誕之辨, 豈惟是哉? 信史以來, 去取不謬, 好惡不私者幾人, 而舛僞欺世者總總也. 雖然一時之聞見, 本於無心, 千載之子奪狃於私意.)⁵⁰⁾

49) 王明清, 《揮塵錄·後錄》王明清 跋文, 王禹錫 跋文(上海書店出版社, 2001), 175쪽.

50) 周密, 《癸辛雜識》(中華書局, 1997)

周密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분별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말하며 《春秋》를 계승했다고 말하는 역대 사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조롱한다. 역사를 재단하는 시각과 원칙이 하나일 수 없음을 말하며 짧은 건문이지만 천년 이래의是非功過를 자신의 사사로운 뜻으로 재단해 보겠다고 선언한다. 획일화된 하나의 원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의 시각과 주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야사였다. 비주류적이고 비정통적이며 비공식적인 기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었다. 의리와 명분 같은 고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의 여부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자유로웠으며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 주듯이 자연스럽게 써 나가는 글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식 역사 서술에서는 지양되었던 내막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이 다시 활발히 운용되었다. 송대 야사의 유행은 《春秋》계승 의식의 교조화로 인해 역사 기술의 한계를 절감한 지식인들의 반감 혹은 대안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문학으로서의 역사와 과학으로서의 역사 중 어느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오직 사실과 이념이 강조된 나머지 가독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자는 외면하게 된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우리와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매개물이 史書라면 역사의 기록은 이미 박제가 되어버린 사건과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읽는 자도, 기록하는 자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에서의 문학성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史書는 이데올로기와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서사이다. 따라서 교훈적이고 객관적이며 규범적이어야 했다.⁵¹⁾ 이러한 경향은 송대 춘추학의 성행과 함께 절정에 다다른다. 《신오대사》를 읽으면 도덕적 설교를 받는 듯한 느낌, 《자치통감》은 매뉴얼이 잘 짜여진 정치 교과서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들에게 《춘추》라는 이념의 그들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도덕과 정치적 이념

51) 루샤오핑 저, 조미원 등 역, 《역사에서 허구로》, 138~139쪽.

에 맞춰 재편되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역사쓰기를 모색했다.

《資治通鑑》 이후, 기전체든 편년체든 정식 역사서로서의 격식과 틀을 갖춘 개인의 역사 저술에서 이전 사서만큼의 작품성과 영향력을 갖춘 사서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다. 대신 지식인들은 야사를 쓰기 시작한다. 누구나 사서 편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중앙에서 개인의 사서 편찬을 엄격하게 규제한 원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도덕적 원칙과 결과 중심의 역사, 하나의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는 역사보다는 공인된 역사에서 배제된 과정과 이면, 주변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 내막과 경위에 대한 자세하고 곡진한 설명, 혹은 공식 역사와 다른 결말까지도 야사에서는 가능했다. 이리하여 송대 야사가 수량과 내용적 측면에서 정통 사서만큼이나 성장하여 이후 역사에서 야사를 빼고는 논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를 확장하게 된다. 야사는 정통 사서가 《춘추》라는 이념으로 고식화되면서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되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歐陽脩, 《新五代史》, 中華書局, 1997.
 司馬光, 《資治通鑑》, 中華書局, 1995.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97.
 薛居正 等, 《舊五代史》, 中華書局, 1997.
 歐陽脩, 《歐陽脩全集》, 中華書局, 2001.
 永瑤 等,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5.
 趙翼, 《廿二史劄記校證》, 中華書局, 200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江蘇古籍出版社, 2000.
 王鳴盛, 《十七史商榷》, 上海書店, 2005.
 章學誠, 《文史通義》, 中華書局,
 周密, 《癸辛雜識》, 中華書局, 1997.
 瞿林東 주권, 《新舊唐書與新舊五代史研究》,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9.
 李建軍, 《宋代春秋學與宋型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周遠斌, 《儒家倫理與春秋敘事》, 齊魯書社, 2008.
 王德保, 《司馬光與資治通鑑》,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張明華, 《新五代史研究》, 浙江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85.
루샤오핑 저, 조미원 등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中文提要】

《春秋》被認為孔子所作，所以歷代史家都自任了《春秋》的繼承。編纂史書上，《春秋》的繼承意味着史書不只是事實的記錄，要宣傳王道、名分、道義，並要服務為鞏固王朝的正統性，儒家的理念。在宋代，《春秋》的理念化到達了高峰，此時期的史家通過編纂史書來宣傳聖人之意，在這一點上，沒有任何時代比得上宋代。本研究的起點由於為了探討中國歷代史書中減少文學性的傾向，筆者以為其原因在於繼承《春秋》的意識，史書的義理化導致了歷史敘事的僵硬化、客觀化，其過程中文學性越來越減少。本稿以宋代歐陽脩《新五代史》，司馬光《資治通鑑》為中心考察了此問題，而且論證了正統史書中文學性的減少引導了野史的盛行。

【主題語】

宋代史書, 歐陽脩, 《新五代史》, 司馬光, 《資治通鑑》, 野史, 義理史學, 文學性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
--